

타자의 시선으로 본 제주민요

양 영 자*

차 례

1. 머리말
2. 조선시대 제주에 온 양반들이 바라본 제주민요
3. 근현대시기에 외지인들이 바라본 제주민요
4. 맺음말

1. 머리말

유선¹⁾은 신광수(申光洙)의 『탐라록(耽羅錄)』(1764) 서문에서 “우리나라가 비록 비좁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또한 멀리 유람할 만한 곳을 친다면 오직 탐라가 있을 뿐이다.”라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제주의 풍광은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제주를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 이국이나 이방처럼 느끼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려한 풍광 못지않게 제주의 민속이나 언어는 한층 더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 제주에 온 많은 사람들의 문집이나 문헌에 기록되었다. 타자의 시선에는 특히 제주말이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다’, ‘어린애가 야만인의 말을 이해하는 것’²⁾, ‘알아듣기 어렵다’³⁾, ‘뱀새 떠드는 소리와 같다’⁴⁾, ‘왜

* 제주대학교 강사

1) 陸萬中(1727~?)을 말함. 조선후기의 문신, 자는 유선(幼選), 호는 여와(餘窩).

인과 비슷하다.’ ‘중국말과 비슷하다’⁵⁾ 등으로 제주말을 특히 생소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외지인이 익히기에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탐라국시대는 제주사회를 짐작하게 하는 역사적 사료나 문헌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까닭에 오늘날까지도 신화의 시대로 존재하고 있다. 당시 민요의 생산과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되나 이 시기 자체가 기록 문자를 가지지 않은 자연 전승의 시대였으므로 거의 구전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도 제주도의 사회문화적 유산을 기록한 예는 거의 없고 제주민요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세간에 알려지고 빛을 보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이다. 김정(金淨)이 제주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1552)』을 저술하면서 당시의 제주지역의 풍토와 상황을 기술하였고, 그 후 임제(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1577~1578)』, 이원진(李元鎭)의 『탐라지(耽羅志)(1653)』, 김상헌(金尙憲)의 『남사록(南槎錄)(1669)』, 이형상(李衡祥)의 『남환박물관(南宦博物)(1704)』 등이 편찬되면서 제주의 풍토와 풍속, 민요들이 수록되었다. 하지만 이들 기록에 민요 자체만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대체로 언어나 생활풍속 등과 연관

-
- 2) 김정(金淨),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1552)』. “이 고을의 풍토는 또 하나의 유별난 곳으로 하나하나가 놀랍고 해괴하게 느껴진다(此邑風土 別是一區 事事殊異 動可吁駭)”, “도착민의 말소리가 가늘고 높아 바늘로 찌르는 것과 같다. 또 알 수 없는 것이 많았으나 사는 것이 이미 오래 되니 스스로 능히 통했다. 옛날에 이르기 어린애가 야만인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라 했거늘 바로 그것이로다.”
 - 3) 이원진(李元鎭), 『탐라지(耽羅志)(1653)』. “제주지방의 말은 알아듣기 어렵다. 촌백성의 말은 알아듣기 어려우며 말하는 억양은 앞은 높고 뒤는 낮다.”
 - 4) 김상헌(金尙憲), 『남사록(南槎錄)(1669)』. “처음으로 사람의 말을 들으니 뱀새가 떠드는 소리와 같아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다 이러하고 관인 및 성중에 있는 자도 이따금 사투리를 섞기는 하나 대략 난삽하지 않아 호남 사람과 한가지이다.”
 - 5) 이형상(李衡祥), 『남환박물관(南宦博物)(1704)』. “사투리는 알아듣기 어렵다. (중략) 내가 말소리를 보니 새가 지저귀는 소리 같아서 倭人과 비슷하다. 문자를 섞어서 사용하니 중국말과 흡사한데, 상시 문답하는 것은 거의 중국 백화 회화책자인 老乞夫와 같다.”

하여 서술되고 있다.

근현대로 접어든 시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입도와 일본인 학자들의 본격적인 민요 수집이 이루어지면서 제주민요는 또 다른 타자의 입장에서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제주민요를 수집하고 후에 책으로도 발간한 일본인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는 제주도에 남녀공동노작의 종류가 여럿 있어 남녀 구별이 엄중하지 않고, 여자만의 일과 여자가 섞이는 일이 많은 것이 자연히 수많은 민요의 발생을 촉구했다고 보았다.⁶⁾ 그리고 너무 여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식객 노릇이나 한다고 여겨졌다고 술회하기도 했다.⁷⁾ 이때 들어 비로소 제주민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제주에 왔던 유배인, 정치인이나 근현대시기에 입도했던 선교사, 일본인 학자들은 모두 제주를 관찰하고 제주민요에 대한 인상을 서술한 '타자'들이다.

'타자'란 '자기 외의 사람' 또는 '다른 것'⁸⁾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동일성이 없거나 동일한 성질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타자로 보이는 존재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은 자기와 타자 사이의 거리가 존재함을 감지하는 것이다. 즉, 낯선 문화를 자기의 고유한 시선 또는 글쓰기라는 수단을 이용해 이동시킴으로써 변형시키는 것이다.⁹⁾ 타자의 시선으로 제주 또는 제주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제주 외의 사람, 제주라는 자기동일성이 없는 사람, 외지인의 시선으로 제주를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즉, 제주사람이 아닌 자로서 제주에 머물렀던 정치인, 유배인, 또는 외국인들이 제주와 제주사람

6)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 『濟州島の民謡』, 『東方學紀要』別冊2(天理大學おやさと研究所 第2部, 1968).

7) 정운경(鄭運經), 『탐라문견록(耽羅聞見錄)』(1732). “홀로 방아 짙는 노래만이 아니라 망건·탕건·삿갓을 짜고 논밭에서 김을 매고 연가(連架: 도리깨)로서 곡식을 장만하며 테왁을 띄워 바다에서 헤엄치는 데에도 모두 요(謠)를 부른다. 너무 여자들이 일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식객 노릇이나 한다고 여겨졌다.”에 근거한 표현이 아닌가 한다.

8)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

9) 조현범, 『문명과 야만-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책세상, 2002). p.15.

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이 글에서는 타자, 즉 조선시대와 근현대시기에 제주에 온 외지인들이 제주민요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였는가를 살피고자 한다.¹⁰⁾ 외지인들은 제주민요를 바라볼 때 주로 어떤 노래에 주목하였으며, 각 노래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외지인들의 제주민요 관찰과 문헌기록, 한시화, 민요수집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제주민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묘사하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점이나 서술의 문제로 인해 오독(誤讀)되거나 오석(誤釋)되는 과정을 통해 제주와 제주민요가 타자화 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 조선시대 제주에 온 양반들이 바라본 제주민요

2.1. 「방에짚는소리(방아짚는소리)」에 대한 인식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의 기록이나 근현대시기 외국인들의 기록을 통틀어 제주민요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된 노래는 「방에짚는소리(방아짚는소리)」이다. 「방에짚는소리」가 많은 외지인들에 의해 기록된 것은 그만큼 방아 짚기가 여성들의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노동이었기 때문이다. 가족의 끼니를 잇기 위해서는 곡식을 장만하여 뺏고 가는 일을 거를 수 없었으므로 「방에짚는소리」와 「ㄹ레ㄹ는소리(맷돌소리)」는 집안에서 연중 불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어느 지역이나 이 노래가 분포하고 있으며, 부르지 못하는 여성도 없었다.

10) 광복 이후에는 김영삼, 임현도, 임석재, 영국의 존리비 등이 제주민요를 채록하였다. 김영삼은 『제주민요집』(1958)·『제주도민요해설』(1963)을 발간했다. 최근 1960년대 임석재가 채록한 제주민요가 『한국구연민요자료집』(2004)에 수록되었고 1964년 영국인 존리비가 채록한 컬렉션이 확보되었다. 이 중 노래의 각편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사람은 임현도(『제주민요의 유별적 고찰』, 1968) 정도이고 다른 이들은 채록한 제주민요를 수록하는 데 그치고 있어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에짙는소리」는 절구통에 곡식을 넣고 짬을 때 부르는 노래인데, 절구는 통나무나 돌을 재료로 속을 파내고 거기에 곡식을 넣어 제분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이다.

김정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는 “절구는 있으나 짬은 적이 없다.”고 했고, 정은의 『동계집(桐溪集)』에 실린 「촌녀저가(村女杵歌)」에도 “지방 풍속에 절구가 없다(土俗無春聲)”고 했다. 이원진의 『탐라지(耽羅志)』 풍속조에는 “디딜방아는 없고 오직 여인이 손으로 나무 절구에 짬는다.”고 하였다.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에는 “풍토록¹¹⁾에 의하면 절구(臼)는 있으나 방아(春)는 없다. 지금은 마을 안에 두어 집 방아를 본떠 만들어 육지의 것과 같이 한 자가 있으나 지방인들은 옛 습관에 젖어 이것을 잘 쓰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형상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는 “다듬잇돌도 없고 절굿공이도 없다. 예로부터 방아가 없으므로 수 3인 혹은 7~8인이 손으로 나무절구를 짬는다.”고 하였다. 이들 기록으로 볼 때 제주도에서는 육지와 같은 방아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로 만든 절구, 즉 ‘남방에’를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현무암을 가공하여 ‘돌방에’를 만들어 제분에 사용하기도 하고, 나무의 중앙에 홈을 파서 ‘천’을 만들고 그 중앙에 돌로 만든 ‘돌혹(돌확)’을 박아서 남방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남방에는 여성 혼자서 짬기도 하지만 두셋에서 다섯 명까지도 짬었으니 ‘두콜방에’, ‘식콜방에’, ‘다섯콜방에’라고 한다. 그래서 남방에에 곡식을 넣고 짬을 때 부르는 소리를 ‘남방에(짬는)소리’라고 한다.

이건은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서 “여인들이 절구 짬는 일이 있으면 여럿이 모여 힘을 합하고 모두 노래를 부르면서 짬으므로 수십 말의 곡식이 순식간에 짬어지나 노래 소리가 슬프고 처량해 들을 수가 없다.”¹²⁾고 하였다. 이원진은 『탐라지(耽羅志)』에서 “방아질 하는 노래 소리가 애처롭다. 제주지방 풍속에 노역하는 일은 모두 여자를 시킨다. 2~3명 혹

11) 김정의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을 말함.

12) 女人有砧杵之役 群聚并力 齊發杵歌 數斛之穀 頃刻春之 而歌聲悲涼 不可聞也

은 4~5명이 함께 방아를 찧는데 반드시 서로 방아질 하는 노래를 부른다. 그 음조가 몹시 애처롭다. 맷돌을 가는 노래 또한 그러하다.”고 했다. 이형상도 『남한박물관(南宦博物)』에서 “절구질 소리는 구슬프고 아리다.”고 하였다.

「방에짙는소리」, 「ㄹ레ㄹ는소리」에는 신세한탄 하는 사실이 많다. 집단적으로 불리는 노동요에서는 협업을 통해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하여 슬픔의 정서가 개입되는 것이 차단되는 반면, 개인적으로 불리는 노동요는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장시간 이어지는 작업의 성격상 설움과 한을 독백으로 호소하는 신세타령으로 흐르기 쉬운 까닭이다. 「방에짙는소리」나 「ㄹ레ㄹ는소리」는 집안에서 장시간 안정감 있게 불린 만큼 여성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에 적절했으므로 사실의 양이나 문학성이 빼어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식이나 부모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간접하게 토로하면서 공감했기 때문에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적합하였다. 또 곡식을 빵거나 가는 작업은 여성들이 밭일이나 물질을 하지 않는 늦저녁이나 새벽에 주로 이루어지고, 이때 여성들은 고요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외롭고 고단한 인생살이를 들여다보게 되어 노래는 더욱 애상적이고 구슬픈 곡조를 떨 수밖에 없다. 이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에는 한결같이 이 노래들이 ‘처량하고, 애처롭고, 구슬프고, 아리고, 처절하고, 괴로운 노래’로 비친 것이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골목 또는 어느 집에서 문득 들려오는 「방에짙는소리」가 정치적으로 소외된 외딴 섬에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처지와 대비되면서 널리 공감되고 인상적으로 와 닿았던 것이다. 이러한 공감은 종종 한시의 소재가 되어 문헌에 기록되기도 했다.

정온(鄭蘊)은 「촌녀저가(村女杵歌)」¹³⁾에서 “이 지방엔 방아찧는 풍속이 없으니/ 마을 아낙네 절구공이를 안고 노래부르네/ 높고 낮음이 가락이 있는 것 같고/ 꿇일락 이을락 서로 어울리듯/ 모름지기 의지하여 뜻을 풀고자 하였더니/ 자주 들으매 부끄러워 부르지 않아/ 처량하게도/ 새벽 달

13) 정온(鄭蘊), 『동계집(桐溪集)』(1569~1641).

에 잠 못 이뤄/ 먼 곳에 온 나그네 머리만 세누나”¹⁴⁾라고 했고, 신헌수도 『탐라록(耽羅錄)』에 「방에짙는소리」에 대해 여러 편의 한시를 남겼다.¹⁵⁾ 「방에짙는소리」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다른 선비들과 다르지 않다.

조선시대 제주에 온 외지인들이 「방에짙는소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한결같이 귀양살이로 인한 우울하고 부자유한 삶, 정치적 변방에서 살아 가는 외로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현실의 적막함을 불러일으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처량하다, 구슬프다, 아리다, 처절하다, 괴롭다는 표현 속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를 동일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방인으로서, 관찰자로서 동정의 시선을 담고 있다. 노동요의 기능이나 사설, 노래의 배경, 화자에 대해 조명하기보다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매개로서만 인식함으로써 감상적 수준의 자아몰입, 이국 취향과 낭만적인 태도가 깔려 있다.

수많은 제주민요 중에서 유독 「방에짙는소리」만이 조선시대 제주에 온 외지인들의 글에 오르내렸던 데는 타자의 시선과 관심이 큰 몫을 담당하였다.

문집이나 저서에 당시의 풍토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들은 대부분 유배인 또는 목사(牧使)로서 당시의 식자층이었다. 이들은 노동현장을 가까이에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노동요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이다. 낮에 산수를 찾아 노닐며 자연을 감상하거나, 책을 읽고 난을 치는 행위 외에 노동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들로서는 집안에서 행해지는 노동요 이외에는 접할 길이 없었다. 왕족이나 양반의 신분으로 귀양을 왔거나 목민관으로 제주에 온 선비들은 여전히 지배층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며 양반으로서의 삶을 살았으므로 이들이 제주여성들의 힘들고 고독한 노동과 삶의 무게를

14) 土俗無春聲 村娥抱杵歌 / 高低如有調 斷絕似相和 / 欲解須憑譯 頻聞慚不歌 / 淒涼曉月下 遠客髮先皤

15) 가족웃 입은 남녀들 모두 방아짙는 노래 부르네(「풍토」), 방아짙는 여인들의 구슬픈 노랫소리 성가퀴에 매아리치는데(「밤에 흰(喧)자를 갖고서」), 홀연히 남방여인의 방아노래 일어나나(忽聞蠻女春歌起)/그 높낮이 차마 처절하여 노래가락이라 할 수 없네(淒切高低不是腔)(「7언율시」) 등에 묘사하였다.

이해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제주사람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원지(遠地)에서 듣는 노래 가락이나 사설은 자신의 처지와 향수를 자극하는 촉매로 인식될 뿐이었다. 방아 찧기와 맷돌 갈기가 밭일이나 물질을 하지 않는 한 밤중에 가족의 생계를 잇기 위한 생존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민요를 바라보는 외지인들의 시선은 한결같이 바라보는 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의 범위 안에서 서술되고 있다. 「방에짙는소리」가 어떤 작업환경에서 어떤 사설을 담아내고 있는지, 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그들은 직접 노동현장을 보고 경험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돌담 넘어 들려오는 소리와 사설에 대해 피상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반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제주라는 독특하고 낯선 문화에 대해 늘 거리를 두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낙들의 틈에 끼여 사설을 재음미 하는 데에도 양반들의 체면이나 지위가 방해가 되었을 것이므로 자신들의 처지와 빗대어 동일시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 인식의 한계를 보인다.

2.2. 「물질나가는소리(네젓는소리)」¹⁶⁾에 대한 인식

제주도 해녀의 기원은 4세기부터라고 보고 있으며, 17세기까지는 남자

16) 필자는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민속원, 2007)에서 노래의 명칭을 논한 바 있다. '해녀' 집단에서 폭넓게 통용되는 것은 「물질소리」와 「네젓는소리」인데, 개념으로 본다면 「물질소리」가 포괄적이고, 「네젓는소리」는 「물질소리」의 하위 장르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네젓는소리」는 기존에 존재하던 「물질소리」를 수용하여 거기에 노 젓는 기능이 더해지면서 가락의 역동성과 사설의 풍부함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 개념인 「물질소리」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해녀노래」라고 해서 노래명 앞에 직능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민요분류기준에 일치하지 않으며, 「해녀노젓는소리」는 보다 앞선 형태인 테왁 짚고 나가면서 물질하는 행위를 간과함으로써 물질작업을 노 젓는 행위로 축소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글에서는 노래의 기능성을 명확히 살리기 위해 「물질나가는소리」를 사용하였는데, 「네젓는소리」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이다.

와 공동으로 작업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⁷⁾ 하지만 물질이 오랜 역사 동안 이어져 온 데 비해 기록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일본인 학자는 제주도라고 하면 해녀를 연상하리만큼 섬의 해녀, 즉 잠녀가 유명한데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제주도의 해녀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못했던 것은 나잡 행위 때문으로 주자학이 성행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관제의 사서에 쓸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⁸⁾

조선시대에는 해녀들에 대한 관의 횡포와 수탈이 커서 그 고통이 매우 컸다.¹⁹⁾ 해녀들의 진상품은 세종 이전까지는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그 부담은 막중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특별한 날에 올리는 진상이 있고, 진상의 대상이나 진상품의 품목에 따라서도 세분화되는 등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각 포구의 해녀에게 수세를 빙자하여 미역 등을 강제로 팔게 하여 사리를 취하는 폐단이 있었다.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에는 과도한 공납과 관리의 수탈로 인하여 포작들은 물에 빠져죽거나 오래도록 바다 가운데 있고, 공납의 무를 다하지 못하면 잠녀들은 오래도록 감옥 속에서 원한을 품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1년 동안의 진상 미역과 전복 공납을 준비해야 했으니 부역과 진상으로 인한 고충은 실로 컸다. 제주의 사정이 이러했으므로 외지인의 눈에도 해녀들의 물질은 수탈과 억압의 모습으로 그려졌다.

신광수는 목숨을 건 물질을 멀리서 지켜보고 타자의 시선으로 「잠녀가(潛女歌)」를 지었다.²⁰⁾ 당시 잠수관행을 고려해 볼 때, 양반의 신분으로

17) 강대원, 『해녀연구』(한진문화사, 1973).

18)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제주도』, 『제주여성사자료집Ⅱ』(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2008). “어찌된 일인지 「당서동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고려사」, 「지리지」,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사서에 잠녀에 관한 것이 쓰여 있지 않고, 육지에서는 잠녀를 볼 수 없으므로 그 무렵 제주도에 잠녀가 있었다라면 풍속 중에서 한마디 했어야 할 것이다.”

19) 제주목사 기건은 세종 25년(1443) 추운 겨울 남녀가 힘들게 전복을 따는 현장을 보고 채취한 전복을 아예 입에 대지 않았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고, 김상헌의 『남사록(南槎錄)』(1601년), 이형상의 『남한박물(南宦博物)』(1704), 이건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1712) 등에 해녀들의 진상과 고통의 실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20) 신광수, 『石北集』卷七, 「潛女歌」

여성들만의 작업현장에서 물질하는 모습을 취재하기는 곤란하였을 것이고, 가까이서 「물질나가는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겠지만, 물질관행이나 행위, 당시의 사회상 등을 비교적 소상히 기록하였다.

그는 “팔도가 다 서울로 진상보내매/하루에도 몇 바리씩 건복이 생기니/고관집과 부엌과 귀하신 분네야/신고하여 진상된 줄 어찌 알리요/잠깐 한 번 썰고 물리는 것을”이라고 하여 주린 짐승에게 물리기도 하고 죽음을 무릅쓰면서 물질을 해다 진상을 보내는 모습을 애달파하였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마련한 그 물건을 내 어찌 먹으리요.”하면서 슬퍼하였다.

당시 제주에 온 지식인이나 정치인들이 해녀들의 삶을 조명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현실인식에서 진일보한 면을 보인다. 또한 외지인들의 기록이 한결같이 집 울타리 안에서 들려오는 「방에짙는소리」를 벗어나지 못

耽羅女兒能善泅	十歲已學前溪游
上俗婚姻重潛女	父母誇無衣食憂
我是北人間不信	奉使今來南海游
城東二月風日暄	家家兒女出水頭
一鉞一竿一匏子	赤身小袴何曾羞
直下不疑深青水	紛紛風葉空中投
北人駭然南人笑	挈水相戲橫乘流
忽學鳧難沒無處	但見匏子輕輕水上浮
斯須湧出碧波中	急引匏繩以腹留
一時長嘯吐氣息	其聲悲動水宮幽
人生爲業何須此	爾獨貪利絕輕死
豈不聞陸可農巖山可採	世間極險無如水
能者深入近百尺	往往又遭飢蛟食
自從均役罷日供	官吏雖云與錢覓
八道進奉走京師	一日幾駄生乾餓
金玉達官庖	綺羅公子席
豈知辛苦所從來	纔經一嚼案已推
潛女爾雖樂吾自哀	奈何數人性命累吾口腹
嗟吾書生海州青魚難喫	但得朝夕一蕘足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역시 감상적이고 단편적인 데 비해, 「잠녀가」는 한 편의 「물질나가는소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양반의 신분으로 이 정도 상세한 물질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짓기·누에치기·산나물 캐기 등 여자들이 할 일이 많은데 하필이면 험한 물속을 드나들며 물질을 하는지 의아해 한다든가, 물질을 ‘낙으로 여긴다.’고 표현한 것 등은 외지인으로서 현실인식의 한계를 보이는 대목이다.

제주여성들은 밭일과 함께 물때에 맞춰 물질을 병행하며 시공을 초월한 삶을 살았는데, 나물 캐기나 누에치기 등은 덤에 해당하는 사소한 일들이었다. 그들은 한밤중이나 새벽에 멧돌을 갈아 가족의 끼니를 잇고, 해 뜨기 전에 밭에 가서 김을 매다가, 물때에 맞춰 물질을 했다. 목숨을 건 바다 속을 왕래하며 해산물을 채취하고 밭일을 하며, 사이사이에 가사일과 잡일을 하면서 생활을 지속하였다. 그들이 슈퍼우먼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삶을 ‘낙으로 여기는’ 것은 고통스런 그 일이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잠녀가(潛女歌)」는 당시 진상과 공납에 시달리던 육고역(六苦役)²¹⁾의 하나였던 하층계급인 잠녀(해녀)에 주목하였다는 점, 오늘날 당시 전승되고 있던 「물질나가는소리」의 기록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사설과 노래의 배경, 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그는 지배층인 양반으로서, 남성으로서 현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삶의 치열성과 진정성을 체득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만 감지함으로써 현실인식의 한계를 보인다.

21) 조선시대 제주지역에는 진상과 공납으로 인한 고통이 매우 컸는데,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여섯 가지 직역인 ‘牧子·潛女·浦作人·果園直·畚漢·船格’ 등을 가리켜 ‘六苦役’층이라 했다.

2.3. 「밭볼리는소리(밭밟는소리)」에 대한 인식

이형상의 『남환박물관(南宦博物)』에는 제주의 농경방식과 축산 양태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다른 유배인이나 정치인들과는 달리 목민을 담당한 위정자로서 농경이나 마정(馬政)을 중요시하여 꼼꼼히 살핌을 알 수 있다.

그는 “제주의 풍토가 목마하기에 적합하여 공사 둔마(公私 屯馬)들이 각자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달아나지도 않고 섞이지도 않으며, 스스로 집단이 형성되어 통령²²⁾이 있는 것 같고 서로 쫓아다닌다. 또한 크고 작은 소와 말은 겨울과 여름을 막론하고 모두 들에 풀어놓아 기르므로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소와 말의 분이 없다. 소와 말이 많은 부유한 자는 한 명의 종을 정해 목동으로 삼고 그 소와 말을 몰고 다니면서 편의에 따라 먹이고 해가 저물면 하나의 밭 속으로 들어와 모두 붙들어 매고 밤새도록 풀어놓지 않아 분을 밭 가운데 모이게 하고는 다음날 해가 높이 솟은 후에야 방목한다. 소와 말의 분이 밭 속에 끌고루 채워지면 다른 곳으로 옮겨 그 밭에 분을 받는 것을 봄에서 가을까지 계속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음해에 보리를 경작하면 낱알이 풍성해진다고 한다. 이를 ‘분전지도(糞田之道)’라 한다.”고 적고 있다. 제주도의 마소의 운용과 농경방식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상과 풍토를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서술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결여된 부분이 더러 보인다. ‘부유한 사람으로 소와 말이 많은 자는 한 명의 종을 정해 목동으로 삼고 그 소와 말을 몰고 다니면서 편의에 따라 먹이고’ 한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제주에서는 마소 가꾸는 일을 ‘번’이라 하는데, 마소를 번갈아 돌보기 위하여 동네사람끼리 ‘므쉬집(마소집)’을 조직하여 운용하였다. 그리고 마소를 돌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테우리’²³⁾라는 직업은 ‘종’이 아니다. 집원의 한 명일 수도 있고 전문 테우리일 수도 있다. 목민관으로서 마정과

22) 統領 : 지휘하는 말.

23) 마소의 물이꾼인 목동.

농경에 대해 두루 꿰고 있기는 하나 사회조직이나 생활방식을 파악하지 못한 외지인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남환박물(南宦博物)」에는 마소의 방목, 농경 모습과 관련하여 밭 밟기(踏田)와 팔양(八陽), 「밧볼리는소리(밭밟는소리)」에 대한 구연상황을 설명해주는 기록이 있다.²⁴⁾

제주도는 화산재로 덮여 있어서 땅이 푸석푸석하고 물기가 적다. 게다가 바람이 많아서 씨앗을 뿌리면 날아가 버리기 십상이므로 파종한 씨앗이 뿌리내리기가 어려워 파종 후 잘 밟아주지 않으면 종종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았다. 좁씨를 뿌린 다음에는 마소로 하여금 나무토막에 나뭇가지를 붙여 만든 남테나, 돌로 만든 돌테를 끌게 함으로써 밭을 고르거나, 섬피²⁵⁾에 줄을 달아 사람이 어깨로 끌어서 밭을 고른 다음, 마소떼를 이용하여 밭을 밟아주었다. 밭 밟기에는 20~30마리의 말들이 동원되는데 이들을 인솔하는 일을 테우리가 하며, 이들은 접군들의 일뿐만 아니라 살림이 가난해서 마소가 없거나 남자가 없는 집의 일을 해주었다.

이러한 노동에서 불린 노래가 「밧볼리는소리」이다. 수십 마리의 말떼를 나란히 세운 후 고삐를 가지런히 묶어 밟게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의 테우리들이 조랑말떼를 밭 구석구석 끌고루 몰아가면서 밟으면서 말을 달린다. 마소와 사람이 일심동체가 되어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렀으므로 이 노래는 제주도 전역에서 불렸다. 그리고 밭 밟기에는 여자들도 동참했

24) “주기(州記)에 말하기를 흙 성질이 푸석푸석하고 메마르다. 밭을 개간하려면 반드시 소나 말을 몰고 와서 이를 밟아 주어야 한다. 연경을 2~3년 하면 곡식 이삭에 열매가 없다. 부득이 또 새로운 밭을 개간하는데 공은 배나 들지만 수확은 적다. 이것이 백성들이 크게 곤궁한 까닭이라고 하였다. 내가 보니 과연 밭 품질이 알개 이기게 되어 있다. 밟아주지 않으면 파종하지 못하고 거름을 하지 않으면 이삭이 나오지 않는다. 그 까닭에 우마를 몰고 나와 종일 달리고 짓밟는다. 이것을 답전이라 말한다. 그 우마들을 축장한 속에 가두어 밤낮으로 밭에 똥을 싸게 한다. 이를 팔양이라 부른다. 대개 그 토성이 흙 기름지고 비옥한 것이 있는데 수확하는 바가 육지에 배가 된다. 그러나 연경을 하지 못하면 답전과 팔양을 한다. 또 우마를 몰고 다니는 것은 휘파람으로 하고 소리로 하지 않는다.”

25)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수없이 많이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고는 뿌린 씨를 몰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사용하던 농기구.

으므로 여자들 또한 이 노래를 잘 부른다.

「밧볼리는소리」는 제주도의 노동요 중에서도 가락이나 창법이 매우 독특하다.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제주만의 유일하고 특유한 노동요로, 민요조사 초창기 때부터 많은 연구자들에게 가락이 아름답기로 칭송되었던 노래이다.

이형상은 『남환박물관(南宦博物)』에서 “우마를 몰고 다니는 것은 휘파람으로 하고 소리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휘파람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없이 ‘오호호호호……’, ‘오~오~오~웅~오오~호~호~호~호~혹~오~오~오~오~ 오~호호호호 어려려’ 등 의미 없는 여음을 반복한다는 말이다. 마소를 방목하면서 내몰거나 들일 때, 마소에 짐을 싣고 내려올 때, 마소를 이용하여 밭을 밟을 때 등 전통적으로 마소와 관련된 소리는 사실보다 휘파람과 비슷한 음이 주를 이룬다. 상황에 따라 말에게 말을 건네는 사실로 되어 있고, ‘어려려려 어려려 어려려려려려려 돌돌돌’ 하거나 ‘어려려 어려려 어려~ 어려령 어~ 허랑 하~랑’ 등 후렴이 독특하다.

마소를 부리는 「므쉬모는소리(마소모는소리)」도 「밧볼리는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은 매우 원시적인 음으로 이어지는데,²⁶⁾ 이 음은 들판에서 마소와 함께 지내는 사람만이 흉내 낼 수 있는 특이한 고음으로 이어진다. 지역에 따라 ‘어리령 떠리령’ 하기도 하고 휘파람을 섞어가며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임제는 그의 『남명소승(南溟小乘)』에서 “이 섬의 말은 중국과 흡사하다. 소나 말을 모는 소리는 더욱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중국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풍토 때문인지, 아니면 원나라가 차지하여 이곳에 관리를 두었던 까닭에 중국말과 섞여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 하기도 했다. 사회·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원은 목마장을 설치하고 목호를 파견

26) 그래서 현장조사를 갔을 때 「몰모는소리(말모는소리)」, 「췌모는소리(소모는소리)」, 「밧볼리는소리」 등을 불러달라고 했을 때 돌아오는 답은 대개 ‘그거 별 거 아니다.’는 말이기 십상이다.

하여 담당하게 하였으며 제주도에서 방목된 마필을 진상하도록 하였는데, 『高麗史』등에 의하면 충렬왕 때 400필의 말을 원에 진상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제주도의 「므쉬모는소리」나 「밭불리는소리」는 이 시기에 형성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²⁷⁾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陰晴史)』에도 저물녘에 막은골에 가서 밭밟기를 보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다. “이 고장 풍속으로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 반드시 소, 말 수 십 혹은 백여 마리를 뛰게 하여 두루 밭 가운데를 밟게 하는데 그런 뒤에야 파종된 씨앗이 뿌리를 내려서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다.”²⁸⁾고 하였다. 단편적이거나 외지인으로서 제주사회에 관심을 갖고 기술한 흔적이 보인다.

24. 「검질매는소리(밭매는소리)」에 대한 인식

이건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 “섬 지역의 토지는 모두 모래와 자갈이라 밭터가 척박하다. 황두는 팔의 모양과 같고 그 색은 모두 검다. 팔은 녹두의 크기만 하며 그 색은 황두와 같이 희고 적두는 전혀 없다. 해마다 보리가 잘 익지 않아 피와 같은 모양이다. 논은 원래부터 없으므로 섬 지역에서 귀히 여기는 것은 쌀이 최고이다. 관가에서는 해마다 전라와 충청 지역에서 쌀을 사서 배로 운반해 와서 관의 제공과 유배인의 급여로만 사용하고 있다. 대정현에는 간혹 논이 있다고 한다. 섬 지역에서 풍요로운 사람들은 밭에 밭벼를 심어 경작하는데, 밭벼를 심은 밭은 해를 묵히면서 소와 말의 분을 받아 두어 두세 번 뒤집어 간 후에 파종할 수 있고 김매는 공력이 또한 배가되어야 하므로 괴롭다.”고 했다.

「검질매는소리」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옛 문헌에 검질매기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는 드문 예이다. 여기에 실린 내용들은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추정된다. 왕족의 신분으로 유배지에서 밭매기 현장을

27)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민속원, 2007).

28) 무술(1898년) 10월 13일(25일 丁丑)

직접 둘러보고 소리까지 들어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2.5. 「마당질소리(타작하는소리)」에 대한 인식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陰晴史)』에는 “오늘은 주인집에서 열 네 사람을 빌어 보리타작을 했다. 아마도 작년에 거뒀던 것일 것이다. 양쪽에 각각 일곱 사람이 줄을 지어서 서로 마주보며 노래를 합창하며 타작을 하는데 매우 소란스러운 데다가 보리카락 먼지가 마당에 가득했다.”²⁹⁾는 기록이 있다.

이 글에는 「마당질소리」의 구연현장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다. 14명이 양쪽으로 늘어서 서로 마주보고 도리깨질을 하고 있으니 대규모 협업인 셈이다. 「마당질소리」는 ‘어야흥’ 또는 ‘어야도 흥’을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선후창과 교환창을 번갈아 부르는 2박자의 빠른 노래로, 처음에는 서서히 시작되어 도리깨를 내려쳐 타작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락도 점점 빨라진다. 힘이 소진되면 느려졌다가 다시 힘을 내어 빨라지는 연행이 반복되면서 구연된다. 선창자가 사설을 잘 이어가면 후창자가 따라가며 소리를 하므로 매우 생동감 있고 노동이 즐거워진다. 노동이 한창 무르익고 신명이 오르면 선창자, 후창자의 구별이 없이 각각 동시다발적으로 자기의 사설을 노래하는 교환창 방식의 가창구조를 갖고 있다. 양쪽에 일곱 사람이 줄 지어 하는 타작이니 소리의 크기와 분위기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이 글에는 정확성이 결여된 정보도 들어 있다. ‘작년에 거뒀던 것일 것이다.’라는 짐작이다. 토질이 척박하고 협소하며, 강우량이 많은 데다 저장 시설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타작하지 않은 낱보리를 일 년간 보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당시 제주사회에서 수확한 곡식을 한 해씩이나 남겼다가 다음해에 타작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29) 무술 2년(1898) 4월 15일(25일 戊申)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는 당시 제주에 온 양반들이 농사꾼들의 삶과 제주 사람들이 처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는지 알려준다. 결국 정보의 정확성이 결여됨으로써 사회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오류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윤식은 보리를 타작하는 정경을 ‘소란스럽다’고 표현했다. 타작 현장에는 보리를 타작하는 사람 외에도 애기구덕 혼드는 사람, 보리를 훑는 사람, 타작한 것을 나르는 사람 등이 각자 자기 역할에 맞게 소리를 하면서 동시에 일을 하므로 이들이 떠드는 소리까지 합치면 왁자지껄 할 수밖에 없다.

고매한 인품과 교양을 갖춘 양반이 조용히 글을 읽거나 시구를 음미하려고 하는 순간 왁자지껄하게 들려오는 보리타작 소리는 시끄럽기만 하고 짜증나는 순간이다. 마당 가득하게 날리는 보리카끄라기 때문에 방안에 앉아 있기도 거북스럽다. 갓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는 농부들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시간, 신명나는 노동, 흥겨운 소리 한마당이 타자의 시선에 비칠 때는 사방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무지렁이들의 소행으로 보일 뿐이다. 타작하는 광경이 활기차고 신명나는 현장이 아니라 소란스럽고 보리카끄라기 난무하는 공간으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기만 한 곳이다. 그래서 집을 나와 동산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뒤들린 심사를 가다듬게 된다.

그의 시선 속에는 제주사회와 문화를 타자화 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 있다. 이들의 노동과 수고 덕에 삶을 지속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배려보다는 양반이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무시하고 힐난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 태도는 자칫 제주사람들의 생활습관과 태도가 소란스럽다거나 문화 폄하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2.6. 유희요에 대한 인식

제주민요는 노동요가 발달되어 있고 유희요는 드물다.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현청 소재지의 관기들을 중심으로 전승되어온 50여 수 정도의 가창유희요가 있을 뿐이다.

조선후기 제주사회에 경기민요나 잡가가 전래되어 불리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는 대목이 있으나³⁰⁾ 노래의 배경이나 사설에 대한 정보보다는 정치인, 유배인들이 관기들을 불러 유희를 즐기고 여흥을 달랜 소감들을 적고 있는 정도이다. 당시 양반들과 관기들의 접촉이 빈번했으며 제주의 유희요가 관기들에 의해 널리 불렸다는 사실과 이들에 의해 전파·전승되었음³¹⁾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이다.

3. 근현대시기에 제주에 온 외지인들이 바라본 제주민요

3.1. 「방에짙는소리(방아짙는소리)」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민요는 191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처음으로 채록되기 시작하여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학자들이 민요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면서 민요수집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시기에 서양의 천주교 신부가 제주민요를 수집한 것³²⁾이 있어 흥미를 끈다. 1899년부터 1910년까지 천주교 선교사로 제주

30) 김윤식, 『속음정사(續陰晴史)』. “나이 든 기생 세 사람이 와서 놀고 있는데 또 어떤 떡 파는 노파가 노래가락을 잘 불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밤이 될 때까지 들었다.”(무술(1898년) 5월 16일(26일 己卯), “밤에 삼은(판서 李承五)을 불러 우리 집에 오도록 했는데, 정(鄭), 한(韓)이라는 잡가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새벽닭이 울 때야 비를 맞으며 돌아갔다.”(무술(1898년) 6월 23일(초5일 丁巳) 등

31) 임제, 『남명소승(南溟小乘)』에는 “제주의 남정들은 배가 침몰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1년이면 적어도 백여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곳은 여자가 많고 남자는 적어 변방의 여자들이 제 짝을 찾는 경우가 드물었다. 매년 3월에 원병(援兵)들이 변경을 지키기 위해 들어오면 여자들은 곱게 단장하고 술을 들고 나와 별도포에서 기다린다. 배가 포구로 들어오면 술을 권하여 서로 친해져서 자기 집으로 맞아간다. 8월에 그 임무가 끝날 때면 눈물을 흘리며 송별한다.”는 내용이 있다.

32) 『제주여성사사료집Ⅱ』.(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2008), 뒤텔주

에 와 있던 라크루 신부가 1901년 제주민란(이재수란,신축교안) 당시 조선 교구장이었던 뮌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 속에 수록되어 있는 제주민요들이 그것이다.

라크루 신부는 뮌텔 주교에게 보내는 서한문(1910년 1월 21일)에 「미션 카톨릭」의 편집장에게 보내달라며 자신이 수집한 노래를 번역하여 보냈다. 그는 고국의 독자들을 위해서 제주민요를 번역하여 보내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마음의 고귀함과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번역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제주말의 다양한 느낌과 정서를 전달 하기에 어휘의 부족과 번역의 곤란을 느꼈을 것이다. 또 제주민요들을 가리켜 “제목도 없고 그것들이 쓰여져 있는 그대로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서로 관련이 없는 문장들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장들 뿐입니다.”라고 했다. 제주민요가 특정 화소 중심으로 서사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서정적이고 즉흥적인 심경을 산발적으로 토로하는 발화 상황을 표현한 말이다. “여인들은 벼를 찿으며 항상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하면서 웅… 웅…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쉬지 않고 더욱 격렬하게 벼를 찿기 위해 내는 긴 한숨일 뿐입니다. 이 노래에서 웅 소리는 문장이나 그 일부분을 대신합니다.”라고 하여 「방에짙는소리」의 연행방식과 구연의 특징을 날카롭게 파악한 부분도 있다.

라크루 신부가 보낸 노랫말은 「고아의 노래」, 「방아타령」, 「아기의 노래」, 「흥년」, 「깨진사랑」, 「여인들의 욕망」, 「해녀들의 노래」, 「두 명의 고아」 등인데, 사설의 내용으로 볼 때 거의 모두가 「방에짙는소리(방아찿는소리)」나 「ㄱ레ㄱ는소리(맷돌가는소리)」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모은 노래는 거의 모두가 ‘그리움의 고통스런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감상적인 어조를 띤 제주말로 된 단아한 곡’이라 했다.

그는 자신을 보러 오는 이교도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었는데 자신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다. 라크루 신부

교에게 보낸 편지를 보관해 두었던 자료 속에 들어 있는 서한집으로, 현재 한국 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제주사람들 누구나 이 노래에 공감하고 빠져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민요는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포교를 전하는 강력한 도구로 선택된 것이다. 라쿠르 신부가 제주말을 얼마나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주민요를 배워 부름으로써 이교도들과 가까워지려한 이방인 선교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타자로서 라쿠르 신부가 말한 '그리움의 고통스런 인상'이나 '감상적인 어조를 띤 단아한 곡'은 조선시대 제주에 온 선비들이 말했던 '구슬프고, 아리고, 처절한' 소리, 조윤제가 제주민요의 특징으로 말한 '애상적'인 소리와도 통하는 말이다. 제주사람들도 이 노래를 '서창하게' 부르는 노래로 인식하고 있다. 서창하게 부른다는 것은 슬프게 부른다는 말이다.

라쿠르 신부의 글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가 그녀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노래들이 여자들의 노래이고, 그녀들만이 그것들을 만들었고, 그녀들만이 그것들을 부르고 있다."는 대목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들이 다양한 노동에 참여하고 노동에 참여하는 시간도 많다보니 제주민요의 주 담당층은 여성이었으며, 고래로 여성요가 우세하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제주에 왔던 정치인이나 유배인들은 인식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것으로 조선적인 고정관념에 덜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라쿠르 신부가 제주민요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애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에서는 의도적인 오역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어이 저기 아리떠운 아가씨/이 쌀을 찿게 도와줘/네가 산 넘어 시집가면/네 시아버지가 목사이기를/응... 응... 그의 성미가 너무 까다로우면/너무 까다롭게 하면 우리들 세 형제에게 오너라/그의 걱정을 부숩버리리라/우리가 너를 위해 그의 격렬함을 부숩주리라."

고달픈 삶을 하소연하는 대상인 친정어머니는 시아버지로 대체되고, 그 시아버지는 까다로움과 걱정, 격렬함을 징벌할 수 있는 목사로 바뀜으로

써 원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탄생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과 신앙 전파의 측면에서 제주민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번역이라는 수단에 의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동되면서 제주민요는 타자화의 길을 걷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인의 제주민요에 대한 수집과 연구가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는 「민요에 나타난 제주의 女」에서 「방에짙는 소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무수한 방아짙는 노래의 음조는 어느 것이나 너무 힘이 들어, 깊은 밤에 조용히 이것을 들으면 의미를 알 수 없는 손도 슬픈 눈물이 흐른다. 실로 방아노래는 괴롭고 참담하다. 마음속에 얼어붙은 고민을 노래를 빌려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³³⁾ 여인들이 짙을 지어 방아를 짙을 때는 반드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음조가 매우 괴로워 보이며 ‘선마’³⁴⁾ 또한 그렇다고 했다.³⁵⁾ 그리고 여자들이 절구공이를 안고 「방에짙는소리」를 새벽녘까지 구슬프게 부르는데 통역이 없으면 의미를 알 수 없으며, 번번이 들으려고 하면 수줍어서 노래를 해주질 않아서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의미를 알 수 없으면서도 슬픈 눈물이 흐르고, 괴롭고 참담하다는 高橋

33)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 「민요에 나타난 제주여성」, 『朝鮮』212호(소화8년(1933) 4월호).

34) 선마(旋馬)는 연자매 즉 ‘물방에’를 말한다. 제주에서는 ‘물방에’로 탈곡한 조나 보리 등을 조정하였는데, 마을마다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물방에’가 있었다. 제주도의 주곡이 보리, 조, 피 등으로 껍질을 벗기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곡식을 가는 데 말을 부려서 ‘물방에’가 주요 도정기구로 사용되었다. 2008년 여성유적지 조사에서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은 마을은 4~5개에서 수확량이 많은 지역은 20기 훨씬 넘는 물방에를 소유한 마을도 있었다. 그 중에는 독방에(한 가구만 사용하는 방아)도 있었다.

35) 아오야기 츠나타로오[靑柳綱太郎]의 기록에도 “만일 구석구석 도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 고을에 반드시 2~3개의 말방앗간이 있다. 아녀자가 2~3마리의 말을 사용 방아노래(杵歌)를 부르며 돌아가는 모습 또한 기묘하다.”고 적고 있다.(『조선의 보고 제주도 안내』1905.)

후는 ‘어째서 제주민요는 이렇게 쓰라린가.’라는 소제목 아래 제주민요가 슬픈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³⁶⁾

하나는 이여도와 연관지어 제주사람들의 인생관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체로 제주여인들의 노래는 기쁘다, 즐겁다는 노래는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제주여성들의 인생관이 어두운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에짙는소리」의 후렴으로 나오는 ‘이여 이여 이여도하라’는 공물선을 타고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같은 처지의 여자들이 공명공조(共鳴共調)하여 부르기 시작하면서 널리 퍼져나갔는데 여성들이 세상 자체를 싫어하고 자신을 슬퍼하면서 마음속에 비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과도한 공납과 부역을 피해 육지로 도피했던 출륙현상(出陸現象)이나 일제강점기의 도외이출(島外移出)과 같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동기는 제주민요에서 줄곧 ‘이여도’라는 대상의 몰입으로 나타나 「ㄱ레ㄱ는소리」, 「방에짙는소리」, 「검질매는소리」, 「물질나가는소리」 등에서 관용적으로 불린다. 두 사람 이상이 선후창으로 부르는 노래에서는 여지없이 ‘이여도’가 후렴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여도가 들어가는 노래들 중에서도 유독 「방에짙는소리」와 「ㄱ레ㄱ는소리」를 슬프게 부른다.

노래의 생성과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노래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다각적인 현실이 노래에 개입되어 노래를 형성했을 것이므로 제주민요가 민중들의 고통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진상품을 바치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들을 기다리며 여자들이 ‘이여도허라 이여도허라’는 민요를 불렀다는 것, 그 애틋한 기다림이 노래의 정서를 애상적이게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궁할 수 있다.

하지만 인생관이 어두워서 노래의 곡조가 슬프다고 단언하는 高橋 후의 비약은 관찰자적 시선과 객관적 사실을 벗어난 왜곡된 타자의 발언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식민지적 발상,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정치적 음모가 들어 있다. 식민지 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획

36)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후], 「민요에 나타난 제주여성」, 『朝鮮』212호(소화8년(1933) 4월호).

아래 민요를 수집하기 시작했던 자국의 목적에 충실한 나머지 남의 나라의 민족과 노래에 대해서 서슴없는 예단과 횡포를 가한 것이다. 그는 노래가 슬픔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또한 슬픈 노래를 통하여 슬픔의 정서가 승화되는 민요의 가치, 제주사람들에게 이어도는 현실 너머의 공간이며 슬픔을 초극하는 곳에 존재하는 이상향이자 피안의 세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는 「방에짙는소리」와 「ㄱ레ㄱ는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에 이 두 노래를 혼동해서 다루고 있다. 두 노래는 같은 사설이 구연되지만 가락은 전혀 다르다. 방에를 둥글게 에워싸고 서서 힘차게 쿵쿵 짙으며 부르는 「방에짙는소리」는 매우 힘차고 역동적이다. 다섯 명이 함께 짙는 다섯콜 방에 짙은 서로 부딪히지 않고 곡식을 짙어야 하므로 호흡이 빠르고 가락 또한 빠르게 진행되므로 슬픈 곡조는 찾아볼 수 없고 신명에 가까운 경지를 느끼게 한다. 사설만을 놓고 보면 슬프지만 호흡에 맞춰 힘 있게 내려 짙으면서 부르는 가락은 즐겁고 힘차다. 반면, 「ㄱ레ㄱ는소리」는 앉은 자세에서 장시간 동안 유장하고 느리게 부르므로 「방에짙는소리」에 비해 슬픈 곡조가 느껴진다. 高橋 亨은 가장 애절한 가락을 띠고 느리고 유장하게 불리는 「ㄱ레ㄱ는소리」를 「방에짙는소리」로 오인하고 있으며, 또한 이 노래만으로 제주민요 전체에 확대함으로써 제주민요의 ‘흥’이나 ‘생명’, 생명력과 역동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배제하였다.

그것은 그가 제시한 제주민요가 쓰러진 또 하나의 이유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제주여성들은 강하고 견실해서 싸울 때에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기질이 있는데, 여자인 시어머니, 시누이가 모두 강하기 때문에 방아 짙는 노래에 고부간의 불화를 노래한 것이 많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제주여성들의 기질은 해녀들의 「물질나가는소리」 등에서 강한 도전정신과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가락과 사설을 형성하였다. 高橋 亨은 「물질나가는소리」처럼 강인하고 가열찬 노래들에 대해서는 노래의 질이 떨어진다고 폄하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곧, 이중 잣대를 갖고 제주민요를 바라보고 재단하였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식민지시대의

편협하고 왜곡된 타자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민요를 수집하기 위해 내도했던 우리나라 학자인 조윤제³⁷⁾는 자신이 채록한 제주민요의 멜로디가 전체적으로 '매우 苦酸하다'고 했다. 많은 제주민요에 '이여도하라'라는 박자를 맞추고 흥을 돋우기 위한 반주가 붙는데 이여도라는 말 자체가 이미 애상을 띠고 있고, '이여도하라'를 붙여 노래하면 더욱 더 고통스런 게 되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암루에 목 베이게 한다고 했다. 또한 부드러운 사랑 노래도 어딘지 애상적으로 느껴져 제주민요의 특질은 애상적인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⁸⁾ 이러한 시각은 조선시대 제주에 온 정치인들이나 유배인들과 다르지 않으며, 스승인 高橋 亨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양한 제주민요에 접근하지 못하고 특정 민요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확대하여 바라봄으로써 시각의 편협함을 보이고 있다. 민요연구 초기의 이러한 주장은 그 후 제주민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오랫동안 이에서 벗어나지 않고 답습하는 결과를 낳았다.

37)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조선총독부는 각 도로, 도는 군수로, 군수가 다시 보통학교장에게 민요 조사를 시달하면, 그 역의 절차를 거쳐 아래서 위로 보고하게 하는 간접 모집의 방법으로 민요를 집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는 교원을 상대로 민요를 수집하고, 『민요에 나타난 제주의 女』(『조선』통권 202호, 1933년 1월호) 등 다수의 논고를 발표하였다. 1929년 1월 高橋 亨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십 년 정도 전에 제주사람인 김 씨가 400여 장의 민요를 채집하여 중추원에 보낸 사실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 후 조선총독부 편집과에서 각 군청에 의뢰하여 민요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제주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강봉옥(康奉玉)이라는 사람이 제주민요 50장을 채집하고 주석하여 잡지 개벽에 게재했다고 밝히고 있다. 1929년 高橋 亨은 강 씨가 채집한 자료를 가지고 순수 제주민요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였고, 다음 해인 1930년 조윤제를 제주에 보내어 200장에 가까운 민요를 채집하게 하였다. 또, 高橋 亨은 1931년 명륜학원에 입학해 있던 제주의 유생 이창하(李昌廈)에게 청하여 조윤제가 조사한 민요를 재음미하도록 요청하여 도움을 받았다고 하며 이창하 스스로도 섬을 돌며 국풍을 채집하였다. 高橋 亨은 1932~1937년까지 제주를 방문하여 조사한 자료로 『濟州島の民謡』로 발간하였다. 이에 근거한다면 당시 제주사람 강봉옥이 채집한 민요는 高橋 亨이 인용하거나 활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38) 조윤제, 『특집 제주도 - 제도의 민요』, 『문화조선』 제4호(1942).

3.2. 「물질나가는소리」에 대한 인식

조선후기 제주에 유배 왔던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陰晴史)』에는 제주해녀의 고난과 일제에 의한 제주바다의 침탈 현장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데,³⁹⁾ 여기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의 성장과 사설형성 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우리 어장 침탈은 해녀들의 바깥물질의 한 동인이 되었다.⁴⁰⁾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노를 저어 바깥물질을 나가지 않을 수 없는

39) “용머리에 올라 푸른 바다를 굽어보았다. 오늘은 바람이 자고 남녀 수십 명이 구름같은 파도를 들락날락 하고 있었다. 멸치잡이배와 일본 사람의 채복선이 바다 가운데 가득하였다. 산저포에 닿았더니 일본 사람들의 삼판어선(삼나무 판자로 건조한 어선) 12척이 닻줄을 내리고 서로 연결하여 정박하고 있었다. 매 배마다 잠수부 옷 2,3벌씩 걸려 있는데 잠수부 옷은 온 몸을 감싸도록 하고 유리 두 눈을 만들었는데 끝없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는 평행으로 거침없이 걸어다니며 마음대로 전복을 잡는다. 위로 수십 발의 숨 쉬는 관이 있어서 숨을 내쉬게 되면 전복을 크고 작은 것 할 것 없이 남김없이 캐어낸다. 이 섬사람들은 이 때문에 일거리를 잃었지만, 역시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없으니 앉아서 슬픈 탄식만 할 뿐인지라 참으로 한탄스럽다.” 기해(1899년) 6월 30일(23일 己巳)

“고기 잡고 전복 캐는 일본 사람 수십 명이 성 안에 들어와 흩어져 다니며 관광을 했다. 이 가운데 세 사람이 문경(나인영)과 필담을 했다. 그 중 한 사람이 나이는 15세이나 글을 잘 하는데 나가사키에 살고 있으며 배마다 하루에 전복을 잡는 것이 30페미(한 페미는 20개) 즉 600개라고 한다. 제주의 각 포구에 일본 어선이 무려 3,4백 척이 되므로 각 배가 날마다 잡아가는 것이 대강 이런 숫자라면 15,6년이 지나도록 오래 되었으니 어업에서 얻은 이익의 두터움이 이와 같으나 본고장 사람들은 스스로 배 한 척 구비하지 못하고 팔짱만 낀 채 넘겨줘 버렸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랴.” 기해(1899년) 8월 29일(24일 己巳).

40)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883년 일본은 ‘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을 통하여 일본인의 한반도 연안어업을 합법화하기에 이른다. 일본의 어선은 진라·경상·강원·함경의 연안에서 조업할 수 있는 대신 우리 어선도 일본의九州 북부의 長崎縣, 佐賀縣 및 중국의 山口縣, 島根縣과 對馬島에서 조업할 수 있다는 약정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어업은 매우 영세하였으므로 일본까지 출어한다는 것은 꿈을 꿀 수 없는 형편이었다. 설령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곳 어장은 황폐 일로에 놓였기에 실상은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노린 약정에 불과하였다. 1880년대 초 일본 長崎縣 사람들이 제주연안에 들어와 잠수기선으로 전복을 캐기 시작할 때에는 잠수기 한 대로 커다란 전복을 무려 200관씩 포획했는데, 그 잠수기선의 수효가 무려 137척이나 몰려들곤 하였다. 제주 잠수들의 소득

사정이 생겨남으로써 해녀들에 대한 수탈은 더욱 심해졌다.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네젓는소리」는 바깥 출가물질의 산물이자, 사회·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거센 바다를 가로질러 나가는 노래이므로 가락은 역동적이고 사설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高橋 亨은 「濟州島の民謡」에서 제주도민요를 다루기에 앞서 조선민요의 역사, 연구채집의 역사, 조선민요의 특색 등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실린 제주민요들은 제주사회에 대한 역사적 억압과 관리들의 수탈을 반영한 민요들이 주종을 이룬다. 반면, 일제에 대한 저항을 담은 민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강인하고 자주적 기상을 보이는 ‘해녀노래’에 대해서도 질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해녀노래’를 가리켜 제주민요 전체의 의미 중에서 근대적인 것에 오염되고, 표현도 노골적이며 순박함과 함축이 결여되었다고 하면서, 제주 여자들의 노래 중에서 하위에 속하는 편⁴¹⁾이라고 폄하하였다. 제주사람들과 제주민요는 타자에 의해 부정적 인식이 각인되고, 그 가치를 굴절당하는 수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정착을 합리화하는 조사자의 의도가 개입된 결과이다. 제국주의의 이념과 목적 아래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일본인으로서의 제주여성들의 기개와 가열찬 현실인식, 저항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이 노래가 꺾 부당스러웠을 것이다.

같은 시기의 이마무라 도모[今村 鞏]는 해녀 자체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만엽집」에 나와 있는 해녀의 노래나 유키히라(行平) 中納言의 수마(須摩)포의 솔바람, 무라사메(村雨)의 두 미인 얘기, 우마타로(歌麿)의 해녀의 명화를 보고 이 해녀들을 상상하면 환멸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적다색의 머리에 근육이 짜인 적동색의 피부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의 남성나체조각을

은 일본 잠수기선 어획고의 10분의 1도 못 미쳐 물질을 생계로 삼던 사람들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41) 타카하시 토오루[高橋 亨], 「濟州島の民謡」, 『東方學紀要』 별책2, 1968. p.53.

보는 것과 같아 에로틱한 맛 같은 것은 조금도 없다. 우생학의 견지에서 튼튼한 자손을 얻으려는 분들에게는 결혼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⁴²⁾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제주해녀를 폄하하고 비아냥거린다.

하지만 모든 일본인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제주해녀의 물질작업의 양태나 불턱의 이용, 의복에까지 소상히 보고한 츠루다 고로오[鶴田吾郎]⁴³⁾는 해녀들이 물속에 자맥질하였다가 숨비질소리를 하는 것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해녀들이 자연적으로 연출하는 나체 포즈란 것은 상당히 아름다운 것으로써 서양화가들이 모델을 써서 판에 박은 듯한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생각하면 꼭 제주도로 가서 그들을 보도록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여 동시대의 高橋 亨나 今村 鞅와는 사뭇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다.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도 “파란색 바다에서 해녀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찌면 다시 해녀로서 늙어갈 게 틀림없는 12~13세의 처녀들이 자주 물속으로 자맥질하며 해녀 연습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거기서 인간과 자연의 어떤 조화로우움을 보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일종의 가련함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⁴⁴⁾고 술회하면서 제주도 제일의 명물은 해녀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일본인이면서도 제주도 해안에 잠수선이 등장하여 수확물을 남획하는 현실과 잠수부와 해녀들의 생존경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기술하였다. 해녀들의 수확물도 점점 줄어들고 그들의 작업장도 점차 난바다로 쫓기고 있는 상황을 진술하면서 “대부분의 명물이 그러하듯이 그들도 역시 단순한 명물로서 진중히 여겨질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安倍能成의 우려 후 불과 1세기가 되기 전에 이미 제주해녀는 단순 명물의 길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식민지 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획 아래 민간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던 일본인들이 제주민요에 대한 그들 식의 관점과

42) 이마무라 도모[今村 鞅], 「특집 제주도- 제주도를 말한다」, 『문화조선』제4호(1942).

43) 츠루다 고로오[鶴田吾郎], 「제주도의 자연과 풍물」, 『제주도세요람』(1939).

44)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탐라만필』, 『제주도세요람』(1939).

해석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제주민요는 왜곡되거나 진정성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역량은 초기 자료수집의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제주에 대해 갑론을박 하는 일본인들 틈새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제주해녀를 주목한 사람으로 이은상이 있다. 그는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산악순례사업에 한라산 기행 53명의 순례단 단장으로 동참해서 삼성혈을 비롯한 제주도 곳곳의 풍광과 바다에서 해녀들의 조업광경 등 사람들의 생활상을 구경하고 외지인의 시각으로 관찰한 짧은 경험을 기행문으로 썼다.⁴⁵⁾ 그는 해녀들을 ‘바다의 딸들’, ‘바다의 사랑’으로 비유하며 ‘눈물겨운 잠녀!’라고 표현하였다. 해녀들의 「물질나가는소리」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물 위로 솟아오르며 잠았던 숨을 내쉬던 휘파람은 세레나데의 합창이다. 저 슬픈 멜로디, 저 처량한 호소! 수궁을 흔들고도 오히려 그 여향이 하늘에 떠돌아 인생의 괴로움을 곡곡이 아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다분히 감상적이고 낭만적으로 표현하였다. 해녀들의 노래는 경제적 자립성과 육체적 건강에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부요의 모든 슬픔과 인종을 꺾는 역센 노래들’⁴⁶⁾임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의 글 곳곳에는 배를 타고 해녀들의 물질을 관찰하면서 신비한 존재로 인식하는 유람객의 모습만이 그려지고 있다.

3.3. 「검질매는소리(발매는소리)」에 대한 인식

제주도의 「검질매는소리(발매는소리)」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사람은 이즈미 세이치(泉靖一)⁴⁷⁾다. 그는 “발갈기가 바쁘다는 계절⁴⁸⁾이 끝

45) 이은상, 「한라산기행」(1937), 『제주여성사자료집Ⅱ』(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2008).

46) 고정옥, 『조선민요연구』(수선사, 1947).

47)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제주도」, 『제주여성사자료집Ⅱ』(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2008). 1936년 이즈미 세이치[泉靖一]는 두번째 한라산 등반이 계기가 되어 경성대학 법문학부에서 문화인류학으로 전공을 바꾸었다고 한다.

나면 섬의 날씨는 매우 맑아서 바다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하얗게 부서진다. 그리하여 장마철로 접어든다. 밭에는 잡초가 자라기 시작한다. 7월절 전후에는 이른바 검질매기가 바쁘다는 계절이다. 이 계절은 초복이라고 해서 메밀의 파종기와 잡초매기에 밤을 낮 삼을 시기인데 초복이라고 하면 바쁘다는 의미로조차 쓰여진다. 그러나 남자는 이젠 일하지 않는다. 여자는 팥(49)을 쓰고서 격렬한 햇볕과 안개비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oyolan sade oyolan sade라고 하는 sade soli(시대의 노래, 수기동에서 채취)가 밭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이것은 김매는 소리로 집안에서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이 금기를 어기면 그 사람 밭에는 잡초가 무성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사는 '요왕과 신농씨 시대에는'이라는 의미라고 알려져 있으나 분명치는 않다."고 하였다.

「검질매는소리」의 한 장르인 「사데소리」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후렴이 '여기여랑 사데'로 불리며, 밭의 여기저기서 소리를 하면서 김을 매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한두 사람이 김을 맬 때는 소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필시 여러 명이 모여 공동으로 김을 매는 '수눌음검질'⁵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사데소리의 뜻을 '시대의 노래'로 해석하고, 가사는 '요왕과 신농씨 시대'라고 풀이하는 등 오석(誤釋)이 보인다. 민중언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게 특징인데, 기록화 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였다. '사데'를 '시대'로 듣고 스스로 해석한 것이지, 누군가에게 의미를 물어보았을 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추측하여 말해준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검질매는소리」의 담당층과

1935년 여름방학 때 제주방문을 계기로 1936년과 1937년 제주의 이곳저곳을 찾아 다니며 그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민족지」를 썼는데, 일제강점기 식민지 지식인의 눈으로 제주도 문화를 다루고 있으며 우월적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48) 밭을 갈고 파종하는 유월절을 표현한 것.

49) 보리짚이나 댕가비로 엮어 만든 농립인 '페랭이'를 말하는 듯함.

50) '수눌음'은 품앗이를, '검질'은 김을 말한다. '수눌음검질'은 품앗이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김매기를 말하는데, 15명 정도의 수눌음은 보편적이었고, 때에 따라서는 20명에서 30명까지 동원되는 대규모 밭매기이다.

는 무관하게 채록자나 문자개나 아는 제보자에 의해 저질러진 오류인 것만은 분명하다.

말미에 ‘분명치는 않다’고 덧붙인 것은 노래 정보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초기 민요채록자들의 문제점이기도 하거니와 외지인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정확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에 제주에 머물렀던 정치인, 유배인 그리고 근현대시기에 내도한 외국인 즉, 제주사람이 아닌 타자들이 제주민요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식하였는가를 살폈다.

제주민요를 바라본 타자의 시선에는 다양한 노동요를 바라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현실인식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조선시대에 제주에 왔던 외지인들은 양반 신분으로 노동경험을 통해 현실을 인식할 수 없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었고, 근현대시기에 제주에 왔던 이들은 선교나 조사 등의 목적으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민요를 왜곡하거나 굴절시킬 뿐 노래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제주에 온 외지인들은 대개 정치인들이거나 유배인들이었는데 이들에 의해 가장 많이 언급된 노래는 「방에짙는소리」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노래를 곡조가 슬프다, 괴로운 노래다, 구슬프다, 아리다, 처량하다, 애상적이다 등으로 문헌에 기록하기도 하고 한시의 소재로 삼기도 했다.

그런데 조선시대 제주민요에 대한 기록은 타자로서 단편적인 인식, 인상적이고 감상적인 수준의 비평에 머무르고 있다. 그들은 현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제주민요를 바라봄으로써 제주민요에 나타나는 삶의 치열성이나 진정성을 체득하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그들은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바라보는 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앞의 범위 안에서만 서술하였다. 따라서 노동요들은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 제주민요들도 자신들의 처지와 빗대어 동일시하는 정도에 머무르는가 하면 흥과 신명이 있는 소리를 '소란스럽다'고 압축하여 타자화 하는 경우도 있다.

제주민요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에는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노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해석을 일반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외국인 선교사나 일본인 학자들의 민요수집과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

라쿠르 신부는 종교적 신념과 신앙 전파의 측면에서 제주민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주민요를 번역하여 고국에 보내면서 우호적인 언어로 긍정적인 묘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종교적 목적에 의한 의도적인 오역이 보이며, 그 과정에서 제주민요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동함으로써 타자화 되기도 하였다.

식민지 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획 아래 민요를 수집했던 일본인들에 의해 제주민요는 왜곡되거나 진정성을 잃은 경우가 많다. 특히 高橋 亨은 제주민요에 나타난 가치관이 어둡고 우울하다는 식의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킴으로써 제주민요의 가치를 굴절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관아를 비판하거나 저항의식을 반영한 제주민요들을 크게 부각시키는가 하면 일제에 대한 저항을 담은 민요나 강인하고 자주적 기상을 보이는 해녀들의 「물질나가는소리」에 대해서는 질이 낮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제국주의의 이념과 목적에 충실했던 일본인들에 의해 제주민요는 왜곡된 타자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핵심어: 타자, 정치인, 유배인, 외국인, 외지인, 제주민요, 방에짙는소리, 인식의 한계, 우월적 지위, 정확성의 결여

<참고문헌>

<국내논저>

『高麗史』

金淨,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 1552.

林梯, 『남명소승(南溟小乘)』, 1577~1578.

鄭縑, 『동계집(桐溪集)』, 1569~1641.

李元鎮, 『탐라지(耽羅志)』, 1653.

金尙憲, 『남사록(南槎錄)』, 1669.

李衡祥, 『남환박물(南宦博物)』, 1704.

李健,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 1712.

鄭連經, 『탐라문견록(耽羅聞見錄)』, 1732.

申光洙, 『탐라록(耽羅錄)』, 1764.

金允植, 『속음청사(續陰晴史)』, 1897~1901.

박성근, 『제주도 견문기』, 『文教의 朝鮮』, 1928. 8월호.

『도남유고(三)-제주도민요(채집)-』(1930년) 『도남학보』4집(1981) 수록.

조운제, 『특집 제주도-제주도의 민요』, 『문화조선』 제4호, 1942.

김사엽·최상수·방종현 공편, 『조선민요집성』, 정음사, 1945.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7.

김영삼, 『제주도민요집』, 중앙문화사, 1958.

임헌도, 『영주민요의 유별적 고찰』, 공주사범대학, 프린트본, 1968.

김상헌 저, 박용후 역, 『南槎錄』, 『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고정우, 『동계 정온의 유배한시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17쪽.

임동권, 『해설-朝鮮總督府가 1912년에 실시한 『俚謠·俚言及 通俗的 讀物 等 調査』에 대하여』, 『한국민요집VI』, 집문당, 1991.

임석재, 『한국구연민요자료집』, 민속원, 2004.

이원진 저, 김상조 역, 『耽羅志』,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 1996, 273~279쪽.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김찬흡 외,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속음청사(續陰晴史)』, 제주문화. 2005.
양영자, 『제주민요의 배경론적 연구』, 민속원, 2007, 88~91쪽.
『역주 제주고기문집』, 제주문화원, 2007.
조현범, 『문명과 야만-타자의 시선으로 본 19세기 조선』, 책세상, 2002, 15쪽.
정운경 지음, 정민 옮김, 『탐라문견록, 바다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2008.
『제주여성사사료집Ⅱ』,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2008.

<외국 논저>

- 다카하시 토오루[高橋 亨], 『민요에 나타난 제주女』, 『朝鮮』212호, 1933년 4월호, 53쪽.
_____, 『濟州島の民謠』, 『東方學紀要』別冊2, 天理大學お
やさと研究所 第2部, 1968.
아베 요시시게[安倍能成], 『탐라만필』, 『제주도세요람』, 1939.
츠루다 고로오[鶴田吾郎], 『제주도의 자연과 풍물』, 『제주도세요람』, 1939.

<Abstracts>

The eyes of the others saw Jeju folk songs

Yang Young-ja

I studied how the others, the politicians and the exiles who stayed in Jeju in the Joseon Era and the foreigners who came to Jeju in modern times, recognized Jeju folk songs. They had a variety of limits because they didn't be exposed to various work songs. It stemmed from the limit of their perception of reality. There were a lot of politicians and exiles in Jeju in the Joseon Era. *Bangejittneunsori* was the most mentioned folk song by them. They said that the tunes of this song were 'sad, painful, doleful, desolated and pathetic.' The folk songs were recorded in their own literary works and became a material of Chinese poems. However, they showed us plenty of limits. They looked at the Jeju folk songs only in the superior position and they didn't experience the real lives of Jeju people those days. Therefore, they didn't recognize the sincerity and reality of life in the Jeju folk songs. Furthermore, their points of view are not sometimes exact. The information of the folk songs is not precise and they generalized inexact explanations of the folk songs. Especially, the foreign missions and the Japanese scholars show these problems in the collection and research of the folk songs.

- Key Words: the others, the politicians, the exiles, the foreigners, the Jeju folk songs, *Bangejittneunsori*, plenty of limits, the superior position, not precise

* 이 논문은 2009년 1월 30일 투고되었고, 2월 20일 심사 완료되어 2월 23일에 게재 확정되었음.